

## 래전이 형, 미안.<sup>1)</sup>

박기범/동화작가. 국문 91

글을 쓰기로 했다. 시평이라니, 시를 모르는 내가 그 일을 맡은 건 단지 래전이 형 일이기 때문이었다. 무어 잘 된 글을 쓰겠다는 생각 같은 건 아예 없이 그저 래전이 형 일이기 때문에, 래전이 형을 기억하고 기리는, 새기는 일에 보탬이 될 거라 하기에 앞뒤 가리지 않고 약속을 했던 것이다. 학교에 기념사업회라는 것도 있고, 해마다 형에게 가는 일은 학과나 단과대학, 총학생회에서도 가장 마음을 써 준비하는 날이 되어 오기는 했지만 어느덧 학교라는 곳도 그러한 준비가 쉽지 않게 되었나 보았다. 형을 기억하는 이들, 이미 졸업은 물론 그날에서 이십 년이나 멀어진 선배들부터 나서 연락 닿는 이들부터 뜻을 모아 올 이십 주기를 준비하고 있다 했고, 형이 남긴 유고 시집을 중심으로 해 책 한 권을 준비한다 했다. 형을 기억하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글들을 모으고, 형의 유고 시집에 있던 시들을 다시 추리고 모아 내는. 거기에 시평이라 하는 것을 맡아 놓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시절 나는 형에게 술한 약속을 하곤 했다. 약속이었는데, 다짐이었는데, 아님 무언가 붙잡아 매달리고 싶은 어떤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스무 살이 되어 대학이라는 곳에 가 지하 학생회실 벽에 커다랗게 붙어 있는 영정으로 처음 만난 형과 형의 시. 형을 알고 싶었던 것이 어쩌면 팔십 년대를 알게 했는지 모르고, 형의 그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 운동이라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아 가게 했는지 모른다.

해마다 유월이면 형이 남긴 겨울꽃 향기가 무겁고도 괴로웠다. 그러곤

차츰 열사라는 이름의 액자에 가워진 형이 아니라 작고 작으며 여리디 여린 한 인간, 배작 마르고 큰 키에 어눌한 말씨, 고집스런 형의 삶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싶었다. 형이 살던 고향 집, 경기도 화성을 다녔고, 그곳에서 다리를 쓰지 못해 앓은뱅이걸음으로 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형이 가고 난 뒤 한 번도 방 안 불을 끄지 못한 채 주무시는 어머니를 만났다.

형이 나고 자란 방에서 이불을 얻어 잠을 자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발에 들어가 할 줄 모르는 농사일을 거들면서 형의 이야기를 얻어들었다. 그리고 형의 둘째 형인 래군 형을 만나 그 시절 형들의 삶에 닿고 싶어 했다. 지금은 래전 형의 몫까지 더한 듯 지금껏 현실 싸움의 가장 끔찍머리를 견고 있는 래군 형……. 글썽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래전 형과 래군 형을 한 사람, 같은 사람으로 착각을 한 듯도 해. 대학 생활과 그 뒤 방향의 몇 해까지 해서 십여 년에 래전 형이 있었다면, 어쩌면 나는 그 뒤로 래전 형을 잊고 래군 형을 보고 있었는지도 몰라.

학교를 그만두고 나온 어느 해에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골방에서 꼭꼭 처박혀 있는 것으로도 내 안의 어떤 것으로부터 다 달아나지를 못해 보따리를 싸들고 서신에 있는 형의 고향집, 부모님만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 지내기도 했지. 농사일이라는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냥 밥만 먹여 주고 채워 주세요, 여기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러곤 아버님을 따라 포도밭으로, 깨밭, 콩밭, 고추밭, 고구마 밭에서 할 줄 모르는 일을 해질녘까지 하며 지냈다. 지금은 산골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엄두가 나지 않아 관리기나 경운기에 손도 못 대고 있지만 그때는 로터리치는 기계를 배워 꼴을 타기도 했어. 좀 더 있으면 경운기, 트랙터도 니가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아버님 허허 웃으시기도 하셨는데. 그래, 아버님은 단 한 번도 래전 형 말을 꺼내지 않았어. 어쩌다가라도 물으려 하면 고개를 돌려 입을 굳게 다물기만 했지. 어머니는 이 얘기 저 얘기 참 많이도 했는데. 그럴수록 나도 애교를 떨며 어린 시절 형의 일들을 더 물어 듣곤 했어. 마음으로는 어머니께 이런 부질없는 약속을 하기도 했어. 어쩔 형에게 한 약속이었는데도 모르겠네. 막내로 지내겠다고, 어머니의 빈 가슴, 형의 빈 자리에 살아가려 한다.

<sup>1)</sup>래전이 형 20주기 추모식에 맞추어 준비하는 책에 형이 남긴 유고시집에 대한 시평을 쓰기로 약속하고 있었다. 끝내 그에 걸맞는 글은 쓰지 못했고, 글을 쓰지 못한 마음에 적어놓은 메모로 그 자리를 대신한다.

고……. 하긴 어머니도 그런 말을 참 자주 하곤 했으니까. 래전이, 아니 어머니 발음으로는 내전이였지. 우리 내전이허구 닳았어, 이렇게 비쩍 말라가지고는 엄마한테 애교도 얼마나 잘 떨고 그랬는지 몰라……. 그 포도밭, 형의 고향집에 찾아간 지도 벌써 여섯 해가 되어가나 보다. 전 쟁터에 갔던 어느 해, 그 해 봄에 다녀온 뒤로 한 번도 찾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형의 이십 주기를 준비하는 선후배들에게는 미안.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글을 어떻게든 써 보겠다고 형의 유고 시집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그 시절과 그 시절로부터 이어온 지금까지의 어떤 시간들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형에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걸. 형의 시를 읽어 글을 쓰기로 약속한 이튿날부터 나는 죽음 앞에 선 어떤 이 곁에서 손을 붙잡고 있어야만 하거든. 당장이라도 꺼질듯 흔들리며 잣아드는 촛불, 그 촛불을 지키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 잠을 내어 형을 끌어안아 글을 써 보려고도 했지만 도무지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아. 억지로 써댔자 아마 그건 글을 만들어 내느라 이리저리 내 마음에 없는 말들을 짜깁어 그림직한 분위기만 풍기는 글만 쓰고 말 거야. 그런 글을 쓸 수는 없잖아. 할 수 없이 좀 전에는 이 책을 준비하고 있는 선배에게 도무지 쓸 수 없겠다는 문자 한 통을 보내 놓고 말았어. 래전이 형에게는 미안하지 않아. 다만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 마음에 걸릴 뿐이야. 그래도 형의 시를 읽어 독후감이라는 걸 써 보겠다고 형의 유고 시집을 며칠 켜 품고 다니며 꼭꼭 씹어 읽고는 있었어. 그러면서 몇 편 접어놓은 것들이 있어. 이런 시들.

어머니 말씀

어떡할려고 그러니 이노무 새끼들아

난 어떡하라고 두 형제가 다 유치장에 있어  
나와라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어떡하란 말이나 애들아

노량진 유치장에 면회 오신 어머니  
나이 오십에  
칠십 나이 걸늬은  
할머니 주름 가득한  
어머님

어머니가 참 많이도 애기하셨어. 그 때 형들이 유치장을 번갈아 들락거리고, 번갈아 강제 징집을 당할 때, 둘 다 유치장에 들어 이 창살에서 저 창살로 아들들을 만나러 다녀야 할 때, 그리고 끝내 형의 소식을 들어야 했을 때. 이 시를 보면 어머니 주름이 자꾸만 생각난단 말이야. 내전아, 내군아 하시던.

아버지의 고독

1  
죽기 전에 내 땅에서 배불리 먹을 쌀이나 있었으면  
밤낮없이 논바닥 밭이랑을 기고  
여름이면 참외 토마토  
잠나면 똥장군도 저 보며  
유리알 길 미끄러운 겨울날  
뽕튀기 리어카를 끌었던  
아버지



2

“이젠 땅도 있고 집도 있어요  
편히 쉬면서 사세요.”

“아니야

나는 못 배웠어도 느들은 배워야 해  
배워야 농사를 짓지 않지. 지겨워.”

또다시 삼을 싣고  
경운기를 몰았지  
자식 놈들 돌씩이나 대학 보내고  
함박만큼 벌어진 입, 다물지 못하시며  
그래도 다칠세라

“절대루 데모하면 안 돼  
데모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거여.”

3

“래군이구 구속됐대  
어제 저녁 텔레비에도 나온 걸.”

창문에서 뛰어

(미완성)

아버님은 형 얘기를 전혀 않으시지. 마석 모란 공원에도 발길을 아주  
않으셔. 아니, 아주 말씀을 하실 때도 내게 아들이 둘뿐이다 하곤 하시  
니까. 어느 날 폐트병으로 받아 온 술을 마시면서 아버지가 머슴 살며  
고생하시던 얘기를 들려주셨어. 그리고 뽕튀기 장사를 하던 때 얘기,  
기어이 내 눈을 사게 되었다며 흐뭇해하시던 얼굴. 일밖에 모르고, 유

독 초저녁잠이 많은데 비해 새벽잠이 없으시다는 아버님은 새벽 세 시  
부터 손전등을 켜고 눈에 들어가곤 했다 하셨지. 해지고 저녁밥을 들고  
나면 바로 잠에 들곤 했어. 일밖에 모르던, 일뿐이던 분.

손 씨

잠자리에서 듣는 소리가 있다  
뼈걱거리는 발판  
한 발이라도 헛디디면  
곧 생활이 무너진다  
가는 통나무 몇 개, 철사에 의지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  
내년이면 막내가 중학교 가고  
큰 놈이 대학엘 간다  
그놈들만은 이 발판을 타면 안 되지  
넥타이 매고 폭 파묻힌 회전의자에  
빙빙 돌아가는 그런 꿈을 꾸며  
오늘도 손 씨는 발판을 탄다  
발판보다 더 뼈걱거리는 관절의 마찰음을 내며  
수십 년 타 온 발판이  
자식을 생각하면 높아도 낮게 보인다

투사니 열사니 하는 말에서 웬지 형의 노래들은 무언가 결의를 일으키  
고 신념을 다그치는 거친 숨소리가 앞서 있을 것만 같지만, 아니 나는  
이 시에서 형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만 같아. 형의 싸움은 가난에 대한  
연민이었어, 사랑이었어. 그 사랑을 건디지 못해 싸움판에 나선 거였는  
지 몰라.

밤이 새도록 불을 켜 두는 이유

밤이 새도록 나는  
내 방의 불을 꺼 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던 날  
그는 이 방을 떠났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연륜의 끈을 자르고  
열두 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십만 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  
조그만 전세방을 떠났습니다

폐를 갉아먹는 실밥 부스러기나  
뼈를 삭히는 독향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조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이 좋아서는 더욱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싸우기 위하여 간다고만 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나는 내 방의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그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리운 눈 부비며 신새벽에  
또는 어두운 밤에 비틀거리면서라도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기까지 내 방의 불을 꺼 버릴 수 없습니다  
창문의 불빛을 보고 날아드는 불나비처럼  
불나비를 부르며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읽다가도 나는 다시 어처구니없게도 어머니를 생각해. 형을 보내고 난 뒤 하루도 방에 불을 끄지 못하고 잠드신다는 어머니, 지금이라도 불쑥 엄마, 하고 부르며 막내가 문 열어 들어올 것만 같았던 어머니. 그래, 나는 사실 형을 잘 알지는 못하는 걸.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리고 래군 형의 기억과 싸움으로 형을 알아 만나고 있는 게 다였을 테니 말이야.

#### 패랭이의 노래

밤이 모질어도  
꽃을 피워야만 한다  
여린 숨결 한 조각  
가쁜 신음까지도  
아직 동트지 않은 새벽에  
꽃으로 피워야만 한다  
황토밭 머리 한구석에  
미처 눈감지 못한 녀들의  
서러운 부활을 위해  
꽃이 되어야만 한다  
매장개의 정기와  
밤이슬만으로 자라나  
이 역겨운 새벽에  
꽃으로 피워야 한다  
매꽂산 뒤에 숨은 햇살  
마음껏 끌어올리는  
온실의 카네이션보다 고운  
꽃을 피워야만 한다

그리고 형은 언제나 이 패랭이꽃의 모습이었고,

동화(冬花)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르는  
가을꽃일 수 없습니다

제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冬花)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겨울꽃이었어. 몸을 비틀어…….

### 제3부

### 그리운 래전이 뎌

-그후 20년, 선후배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 방명록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이창환/철학84학번

한국사회의 봄은 어느 해 거르지 않고 사건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올해도 예외없이, 대선의 결과에 따른 후폭풍부터 2MB정권의 출범, 총선과 최근의 촛불시위까지 숨가쁘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사건도, 일도 많았다지만, 올해는 더 유난히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87년이 그랬고, 91년이 그랬고 97년이 그랬던 듯 싶습니다. 그래도 매해 봄을 지내면서 어찌다가 가까운 언덕에서라도 진달래를 보곤 했었는데, 올해는 진달래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얼마전 함께 활동했던 동료의 추모제가 있어 마석에 갔었습니다. 그때 박래전형의 묘와 몇 지인들의 묘를 돌아보면서도 진달래를 보질 못했습니다.

많은 꽃들중에 진달래를 보며 남다른 감정을 갖는 것은 80년대의 삶들이 진달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겠지요.

한국사회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으로 바꾼다는 꿈을 꾸며 산화한 많은 열사들을 상징하는 꽃으로 진달래를 생각했습니다. 박래전형 역시 저에게는 진달래이지요.

그래서 진달래는 늘 눈이 시리게, 심장에 화살이 박히는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진달래를 보면, 혹은 마석에 이런 저런 추모제에 가면 속으로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곤 되뇌곤 합니다.

김학철 선생님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독립운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운동으로 다시 중국혁명운동에 참여하셨다가 문화대혁명때부터 중국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한국과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굵이침을 온 몸으로 겪었던 파란만장한 삶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입니다. 연변에 사시다가 말년에 한국을 방문하던 중에 1945년 해

방 공간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고 느끼신 듯 합니다.

40대 중반의 나이가 많은 나이는 분명 아니지만, 요즈음 자꾸 지나온 날들이 떠올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또, 이런저런 자리에서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 선, 후배를 볼 때나 소식을 접할때에도 이 문구가 되뇌어집니다.

우리가 꾸었던 꿈, 래전형과 함께 꾸었던 꿈, 지난 이십몇년간 그 꿈을 꾸며 살아왔던 나와 내 주변의 삶, 언제부턴가 정말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꿈.

90년대 말 이후로 한국사회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는가를 회의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하면서도,

그래도, 그래도,

그 꿈 한자락을 놓지않고 어렵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 발버둥칩니다. 래전형이 죽은지 20년이 되는 올해, 다시 형과 함께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과 나의 삶, 내 주변을 다시 돌아봅니다.

## 광장에서 배우고, 나아간다.

-2008 서울 거리를 거닐며 느낀 단상

정진영/이광수(정외 85학번)의 아내

일찍이 간디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 삶이 곧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擔

우리가 매일 삶을 영위하는 방식은, 전문가의 화려한 수사를 통해 전달 될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숨쉬기, 행동 그리고 보는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도 하다.

식구들과 정겹게 마주 앉은 밥상에서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지도 거의 두 달이 되어 간다. 몇 년 만에 돌아온 서울 하늘 아래서, 한국의 봄에만 누릴 수 있는 꽃다운 정취를 맘껏 누리 보던 계획은, 매번 새로운 뉴스에 긴장해야 하고, 인터넷생중계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날들로 인해 미뤄두어야만 했다.

삶의 궤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가 당선된 일도, 어찌면 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며,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실 끝없는 욕망지상주의를 숭배하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추어진 것이다.

가슴 답답한 어느 날 저녁,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나간 청계천 소라광장은 발랄한 구호와 재잘거림이 넘실대었으며, 축제와도 같았던 그날 저녁에는, 뜻밖에도 많은 10대들이 나와 있었다. 교복차림과 단발머리, 아니면 헐렁한 랩퍼 같은 옷차림으로 아름다운 '도발'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였고, 가슴이 찡하면서 미안하기도 했다.

답답한 학원버스나 PC방에 있을 거 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이 언제 부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일까?

실시간 쌍방 소통이 되는 인터넷 공간과, 정보흡수력이 활발한 데서도 원인이 있겠으나, 생명은 결국 본능이며 의로움이고, 이 나라의 강들이 고통스런 속에서도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정을 통해, 굽이쳐 결국 바다에 이르듯이, 모든 생명은 연약하지만 힘이 있고, 일순간 관념을 넘어선 기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지닌 가장 신성한 주권인 깨끗하고 안전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옹호하고 지켜 나가고자 하며, 더 넓게는 자유롭고, 평등해 질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나가면서 살고 싶을 뿐이다.



## 우리 시대의 영웅, 88만원 세대여

정용석/철학 85학번

새 싹이 돋는다.

군홧발에 패이고, 신사화에 짓이겨져 굳어져버린 콘크리트 땅에서도  
질긴 생명의 숨을 남모르게 품고 있던 씨앗이  
홀로 파란 새싹을 올린다.

가장 먼저 나온 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것은  
자연의 섭리고, 역사의 진리.  
고통을 먼저 느낀 자가 가장 앞서나가는 법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  
어린나이에 규격에 맞춰 키워지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제는 생명마저 벼랑 끝 먼지 같은 처지임을 알게 된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새벽부터 새벽까지 코피 흘리며 공부해도  
아직 가지도 않은 길 저 앞에  
극한경쟁의 전쟁과 살인적인 실업의 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은

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듯  
실업자 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  
아~~ 88만원 세대의 눈물이어

1960년 4.19의 영웅인 그들  
1980년 5.18에 죽어간 형과 누이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던 그들이

해가 비칠 투명한 손에 양초 하나씩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만큼 고통스럽고  
허리가 발끝까지 흰 농민보다 더 힘든 그들

어린 미래여  
지금은 고통만을 호소해도 된다.  
아무도 치유해주지 않는 그 고통을 밤이 다 가도록 호소해도 된다.  
움직이며 만들어지는 역사의 방향을 선협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된  
다. 지금은.

오늘은 촛불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를 몰라도 된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가뒤편은 두꺼운 알을 깨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은 비록 너희들의 노래가 없어서  
윤도현의 애국가를 부르지만,  
너희들의 어깨에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목이 쉬도록 불러도  
괜찮다 촛불을 든 지금은

언젠가는 너희들도 너희들의 노래를 찾아  
밤새 목이 쉬도록 부를 것이고  
너희들이 만든 깃발을  
아침 해가 올 때까지 흔들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희들은 웃을 것이다.

88만원 세대여!

바람 앞의 새싹 후배들이여!  
촛불을 들고 너희들의 미래를 밝히려!!!



## 혹시 랑랑별을 아세요?

심명숙/국문 86학번

저는 마흔이 막 넘었는데 돌 된 아기랑 다섯 살 아이가 있어요. 서른여덟에 결혼했거든요. 신랑은 집에서 아기 보고 저는 작은 출판사를 다녀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지요. 가끔 일기라도 쓰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생각만 하다가 그냥 애들과 쓰러져 잠들어요.

이런 내가 래전 형 추모 문집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래전 형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지만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래전 형은, 독재 정권과 싸울 때는 조금 과격해 보였고, 후배들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돌려 말하지 못해서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그게 조금 순진해 보였어요. 그게 다였는데, 그런데도 래전 형은 언제나 제 마음 속에 살아 있어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그랬어요. 좋은 글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고. 좋은 사람도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요. 권정생 선생님도 저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권정생 선생님이 이야기나 잠깐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권정생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쓴 동화 한 편을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랑랑별 때때롱》이라는 동화예요.

권정생 선생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아픈 몸으로 결혼도 못 했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 이야기들을 동화로 쓰셨지요. 아,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강아지 똥》이나 《몽실 언니》는 한번씩 읽어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랑랑별 때때롱》은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에 1년 넘게 연재했던 동화에요. 연재하는 내내 권정생 선생님이 아픈 몸으로 이 동화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모두들 마음을 졸였지요. 그래도 다행히 동화는 끝내고 단행본으로 낼 머리말까지 써서 보내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동화를 권정생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셨던 최완택 목사님께 보내드렸더니 “왜 마지막에 이 동화를 쓰셨을까?” 하셨대요. 왜 마지막에 이 동화를 쓰셨을까? 이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 속을 땀땀 돌았어요.

《랑랑별 때때롱》은 장편 판타지 유년 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 권정생 선생님 특유의 유머가 곳곳에 살아 있어요. 랑랑별에 살고 있는 때때롱과 매매롱은 지구 별에 살고 있는 새달이와 마달이가 방귀 뀌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나이가 같은 때때롱과 새달이, 매매롱과 마달이가 서로 편지도 주고받으며 경쟁도 하고, 장난도 치는 모습이 아주 재미있어요. 나중에 새달이와 마달이는 날개가 돋은 강아지와 강아지 꼬리를 물고 올라가는 소의 꼬리를 잡고 랑랑별로 떠나지요. 랑랑별은 어떤 곳일까요? 권정생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이 랑랑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떠나셨어요. 동화를 읽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가난’하게 사는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랑랑별의 500년 전 세상은 모든 것이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봇이 농사를 짓고, 자동차도 컴퓨터로 움직이고 아기도 기계에서 태어나요. 최고의 유전자만으로 만든 맞춤 인간인 아이들은 열 살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의 랑랑별은 전깃불도 켜지 않고, 밥상에 반찬도 세 가지 이상 올리지 않고 소박하게 몸으로 일하면서 살고 있지요.

권정생 선생님은 랑랑별의 500년 전 모습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돈 중심으로 흘러가고, 생명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최첨단 과학 문명만을 쫓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비판하고, 그 삶을 넘어서기 위해 ‘가난’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안 사실이지만, 권정생 선생님은 결코 적지 않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픈 몸으로 작고 허름한 오두막에서 혼자 가난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지요. 물론 남겨 놓은 돈도 북한 어린이들이나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

을 위해 써 달라고 유언을 하셨고요.

선생님의 '가난'에 대한 철학이 이 마지막 동화 《랑랑별 때때롱》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동화를 읽으며, 또 권정생 선생님을 생각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남들이 얘기하는 부자가 결코 아닌데, 그런데도 진정으로 '가난'하게 살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글을 쓰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요. 권정생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래전 형을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그러면서도 아마 저는 계속 이렇게 불편해하며 또 그렇게 살겠지요.

## 촛불집회 그리고 386

라경원/영문 86학번

26일 모처럼 동아일보사 옆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갔다. 그동안 난 지방출장, 회의, 육아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작년까지 내가 하는 업무 중 중요한 하나가 反FTA 교육이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그 바쁜 5월을 어영부영하며 지나던 차였다.

방귀 똥 놔 성낸다고 2MB이 광우병 미국 소 수입이라는 사고를 저질러 놓자 이에 네티즌부터 자발적으로 이 항의가 시작되었다. 그런 이 항의를 80년대 토끼몰이로 많은 사람을 때리고 짓밟고 연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참석했다.

집회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치루어졌다.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집회였다. 어떤 장애인은 대학생이라고 밝히며, 소를 키우는 아버지의 자식이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광우병 미국 소 수입 반대에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하나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북한군을 때려잡던 육군 병장 출신인데 내가 빨갱이겠냐고 순수한 마음으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빨간색으로 덧씌우려는 언론과 정부를 상대로 목청껏 항의했다. 또 노래에 큰 관심이 없는 나에겐 생소한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에 맞춰 '나가 이명박', '고시 철회'로 살짝 개사한 노래에 너나 할 것 없이 춤을 모습으로도 항의의 흥을 돋구웠다.

난 내 옆 자리에 앉은 유치원이나 다닐까 한 여자 아이와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되었을까 한 남자 아이를 데리고 나오신 아주머니 데모대와 함께 앉아 있었다. 촛불을 담은 컵이 자꾸 넘어져 컵이라도 탈까봐 걱정하면서도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또 전라도 구수한 말투로 자유발언을 이어간 한 젊은이가 행진을 먼저 시작한 '386 형님들 고맙습니다'는 말을 듣고 난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그래서 남한 사회에 다시 신자유주의 원조 수구들에게 권력을 빼앗긴 386들에게 무슨 고마움일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집회가 끝난 후 동아일보 앞에서 닭장차로 막은 거리를 피해 울지로 입구, 명동입구, 퇴계로 지하차도 다시 영락교회 앞, 탑골공원에서 종각까지 미친 소를 수입하지 말라고 이를 강행하는 2MB는 나가라고 하면서 돌아다닐 때는 명동거리에서 놀던 젊은 사람도 차가 막혀 시위대와 실랑이를 벌이며 뺑뺑거려야 할 택시도 버스도 자가용 운전자도 없이 시위대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문득 87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87년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많이 변했다. 래전형과 함께 하며 군사와쇼 타도하자고 광주학살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최루가스를 피해 거리를 뛰어다니던 가투가 사라진지는 기억을 되새겨야 할 만큼 한참이 지났다. 또 이날 같은 평온한 집회도 나에겐 다소 낯선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 때 있던 건물은 모습을 달리해 그 자리에 고스란히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때 그 자리에 있던 386이 없다. 이 사회에서 일반명사가 되어 민주화운동의 주역처럼 불렸던 그들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난 아쉬움이 크지 않다. 20년이 지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 386이라는 일반명사를 되찾으려면 진짜로 불평등이 가득한 이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노력을 하던가 분명히 도덕적이던가 이 자리를 386으로 메워야 한다. 이 모두 자신이 없기에 난 이제 386이라는 일반명사는 그 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변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변해가는 모든 것에 아쉬움을 어디에서 어떻게 느끼냐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마치 좇돌고 엄청 걷다 힘들어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 담배 한 모금 물려고 대오를 빠져나올 때 그 자리를 누군가 메우듯이 말이다.

## 나는 지금 행복하다

김나미/영문 86학번

하늘과 맞닿은 동네 봉천동 공부방이 나의 일터이다. 이곳에는 실무교사들과 자원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며 공부하고 있다. 우리 공부방은 20년 쯤 되는 나름 역사가 있으니 내가 대학 다닐 적부터 있었던 것이겠지

학교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오는 고등어는 우리 공부방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다. 과학책을 좋아하고 뭐든 작게 만들고 작게 그리는 것을 유난히 좋아한다. 우리 공부방에 오기 전에는 어디 시골 절에서 살았단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과 관계맺음에 서툴다. 화가 나면 다 쓸어버린다. 소리도 고래고래 지른다. 또 고등어는 항상 누런 콧물을 달고 다녀서 아이들이 더 싫어할 때도 있다. 요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은근히 노력중이다. 예쁜 녀석이다.

목소리가 가냘픈 햇빛은 단발머리가 잘 어울린다. 간식시간을 제일 힘들어한다. 오이, 당근, 도라지, 호박 등등을 안 먹는다. 이런 야채들 앞에서 오랜 시간 망설이다가 억울한 얼굴표정을 짓다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그러다가 안 되면 코 막고 냉큼 먹어버린다. 항상 하는 말은 그래도 아기 때는 뭐든 다 먹었다단다. 햇빛은 만다라 색칠하길 좋아한다.

할머니가 머리를 째짤하게 묶어주어서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낙엽소리는 치마 입는 것을 좋아한다. 할머니가 북어찜도 잘하시고 반찬도 맛나게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요즘은 허쫘은 아기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 무슨 이야기를 하든 허쫘은 소리가 난다. 아

마 아기처럼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리라. 낙엽소리는 진짜 낙엽소리도 좋아한다.

할머니가 젊어서 엄마같은 멋쟁이 할머니와 사는 패랭이는 눈치가 백단이다. 공부방에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집에 데려다달라고 조르다가 혼자도 잘 간다. 수학도 잘하고 글쓰기도 잘하고 책읽기도 좋아한다. 재잘재잘 진짜 말도 많다. 수다쟁이다.

공부방에 오랜 동안 다니고 있는 놀이는 발발이다. 열 발 뛰기 할 때 발이 쪽쪽 벌어진다. 다 잡아버린다. 근데 살짝살짝 규칙을 어기기도 한다. 우긴다. 그러다가 아니라고 하면 금방 아닌가 한다. 구름위로 다니는 것처럼 사뭇사뭇 신나게 잘 걸어 다닌다. 산에 오를 때 놀이는 진짜 신난다. 놀이는 아이들을 잘 놀려댄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기도 한다.

고집통인 해바라기는 수학을 잘한다. 가끔 내가 문제를 잘 못 풀어주면 금세 알아차린다. 새로운 선생님들을 특히 좋아한다. 고집피울 때는 참으로 밍다. 교사들 말도 안 듣는다. 야단을 치고 큰소리를 내도 안 된다. 근데 엄마한테 말해야지 하면 금세 풀어진단다. 엄마를 제일로 무서워한다.

홍시와 송아지는 남매다. 공부방에 빠지는 날이 많다. 공부방에 오면 먼저 간식부터 찾는다. 혹시 둘 중에 한명이 안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간식을 싸달라고 한다. 누가 보아도 시샘날 만큼 이 남매는 서로 잘 챙긴다. 이 남매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챙기기선수들이다. 부러움을 한 몸으로 사는 남매다.

식물 가꾸기를 좋아하는 별이는 공부방 텃밭 담당이다. 노래 부르기 대회에서 떨어졌다고 무척 억울해 할 때도 텃밭에 물주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더라. 높은 음들이 많은 노래 부르기를 잘하며 요리 만들기를

좋아해 이다음에 요리사 될 거란다. 날마다 간식준비 같이 하며 연습 중인 별이다.

낮은 학년의 친구를 잘 돌보는 여름햇빛은 뭐든 잘 먹어 예쁘다. 사춘기가 코앞이고 키가 크러는지 밥도 두 그릇씩 잘도 먹는다. 숙제도 혼자 척척 쓱쓱 잘 해낸다. 동생들에게 든든한 언니가 된다. 바깥놀이를 할 때도 교실에서 놀이를 할 때도 항상 살가운 말로 동생들을 보살핀다. 여름햇빛은 벌써부터 자원교사가 되었다.

.....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 .....

나는 다시 멀고 먼 길을 돌아 상도동이 뻗히 내려다보이는 봉천동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나도 가난하다. 더 넓은 집을 마련할 궁리도 없으며 인기 있는 편드를 할 궁리를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전보다 나는 내 삶을 가꾸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들처럼 살자고 산처럼 살자고 마음을 가꾸고 삶을 사는 내 발걸음을 가꾸면서 느리고 가난하고 남을 해치지 않게 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 홈에버는 정상 영업중

김윤수/국문 86학번

어제는 아내와 함께 지척에 있는 홈에버(이랜드그룹)에 장보러 가다가 아차 싶어 차를 돌려 좀 떨어져 있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불매운동 한다는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장을 보고 집에 막 도착했는데 회원등록해 두었던 홈에버에서 아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홈에버 정상영업 합니다" '어쨌든 당신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겠지요

참으로 잔인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공공연히 광고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 또한 스스로를 그들의 소비자로 받아들여 신속하고 유용한 정보를 준다고 여길 테니 말입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먹히는 - 일하는 노동자는 당연하게 안중에도 없는 - 정상영업이란 단어겠지요.

그 곳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잠깐 파업한 동안을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영 언론에서 며칠씩 톱 뉴스로 다루며 그 사태를 보도해도 우리는 그것을 그만큼 노동과 노동자의 가치로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회사에서 인쇄소에 일거리를 맡기고 다 만들어진 인쇄물을 구매하는 일을 합니다.

인쇄노동자들이 불량을 내지 않나, 가격은 저렴한가, 납기는 어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직업병처럼 달고 다닙니다.

한가한 소리일진 모르지만 혹시 이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만큼 난 대가를 치루고 있는지, 또 비용과는 별개로 부당하고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은 과연 해 보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아울러 나 또한 조직사회라는 프레임에 길들여져 회사 내에서의 온당치 않은 처신에 무신경하게 지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이곳 을지로 인쇄골목에서도 '성진애드컴'이란 인쇄업체노조에서 혹독한 겨울에 허접한 비닐천막 하나로 장기농성투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저임금체불도 모자라 노조원에 대한 왕따 대응과 CCTV 감시 그리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일회용품 취급하는 인격모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다 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시대와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박래전 선배가 가신 지 20년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머리 뒷채를 잡아끄는 건 이렇듯 변하지 않은 내 앞의 현실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만 평가되고 유능함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아닌 노동의 가치가 옳이 존중받는 사회가 우리에게겐 필요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제 친구가 삽니다. 오늘은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니가 자주가는 방학사거리앞 홈에버 지금 아직 정상영업 안 하고 있다."

## 꿈틀거렸으면

김재범/철학86학번

내가 박래전 선배를 접하게 된 것은 방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복학한 후 1990년 3월 초 영화 동아리를 창립하면서 시작된다.

동아리의 이름을 정하는 회의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는 내가 내놓은 영사위(영화와 사회를 위하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동화(박래전의 시 제목)가 있었다.

나는 1학년 때 탈춤을 배웠던 기억에서 외사위, 양사위, 겹사위 등의 춤사위가 생각나서 영화로 춤사위를 취본다는 뜻에서 '영사위'라는 이름을 제안했고, 국문과를 다니던 한 후배는 자기가 읽은 래전 형의 시에서 따온 '동화'를 겨울 동, 꽃 화가 아닌 움직일 동, 그림 화로 바꿔서 제안했던 것이다.

동아리 회원들의 표결을 해보니 '영사위'가 몇 표 더 많아서 그렇게 결정은 되었지만 '동화'라는 이름에 미련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방위를 받는 동안 일어난 래전 형의 이별도 이별이지만 복학한 후 읽게 된 그의 시집도 나에게서는 또다른 감흥이었다.

'동화'를 움직일 동, 그림 화로 바꾸어 영화 동아리에 이름 부치려 한 후배의 뜻도 조금은 알 수 있었지만 표결로 이미 회의는 끝났고 '동화'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은 계속됐다.

벌써 18년 전의 일이지만 나에게서는 아직까지 여운이 남는 일이었고 그 여운은 내가 하는 다른 일들로 전이되기 시작했다. 1997년, 친일과 영화감독에 관한 다큐멘터리, 2000년 인권변호사인故 조영래 10주기 추모영화, 그리고 지금 9년째 촬영중인 일본 교토의 조선인 마을 <우토로>.

전에 어떤 CF를 보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런 대사가 있길래

조금 꼬아서 나는 가끔 "사랑은 꿈틀거리는 거야"라고 우스갯소리도 했다.

그런데 나도 이제 조금씩 꿈틀거렸으면 좋겠다. 지렁이처럼, 꿈틀이처럼...

그래서 '겨울 꽃, 동화'도 '래전이 형'도 '움직일 동, 그림 화'처럼 꿈틀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희도 움츠리지 말라고 굳어있지 말라고, 움직이라고 움직이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 뭘 답았어?

송영택/철학86학번

그동안 난 뭘 답으려 노력했는지 생각해봅니다  
어느 동화에서처럼 답아도 답아도 차지 않는 항아리……  
마음도 몸도 지쳐버린 나.  
출근길 정체된 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하며 흘러가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형의 20주기가 된 지금도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지요

살아가는게 왜이리도 힘겨운건지

그래도  
내일은 올 거고 명이 다하는 날까지 버티기는 해야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이젠 무더져 버렸습니다.

2MB가 되고, FTA가 되고, 미친소가 오고, 강부자도 오고……  
이런 소식들이 관심밖의 일들이 되면서  
한잔 술자리의 안주거리로만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손잡고 쫓불이라도 들어보려면  
퇴근시간을 눈치봐야하는 현실

이런 애비를 바라보면서 커가는 아이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는 나랑 먼 얘기로만 들리고  
그저 부자아빠만들기 편드가 더 관심이 가기만하는 그런 나.

이젠  
뭔가 다른 걸 답아야 한다고 그런 내가 되었으면……

오늘 아침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 형

### 정경일/철학87학번

그 해, 래전 형은 스물 여섯, 나는 스무 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 년이 훌쩍 흘러 지금 내 나이 마흔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스물 대여섯 즈음의 내 모습이나, 그 연배의 요즘 친구들을 보면 무척 어려 보이기만 한데, '스물 여섯 박래전'은 내게 늘 어른스러운 형으로만 기억되어왔거든요. '스물 여섯 박래전'이 지금껏-또한 앞으로도-내게 형인 이유는 자신을 세상에 온전히 내어 준 그의 자기초월적 삶 때문일 겁니다.

'스물 여섯 박래전'이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 연구자요 수행자로 살고 있는 내게 형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종교적 인간'입니다. 그가 삶과 죽음을 통해 실천한 '자기초월'은 종교적 인간이 추구해 온 이상이니까요. 작은 자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고통 당하는 이웃과 하나 됨으로써 큰 자아를 실현한 형의 삶은 종교적 성인들의 자기초월적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래전 형이 종교의 세상을 개선하는 역할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나조차도 현실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죄악을 목격하며 절망했던 걸 상기하면, 그가 종교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기가 바뀐 지금, 종교에서 희망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제의 종교가 권력을 축복하고 비호하는 데 그친 반면, 오늘의 종교는 스스로 권력이 될 것을 욕망하고 있으니깐요.

제도화된 종교들에서 찾을 수 없는 자기초월의 가능성을, 역설적이게도, 비종교적 사회운동가였던 '스물 여섯 박래전'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시원한 해방감을 줍니다.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민중의 아들이었지만 민중이 아닌 길을 걸을 수도 있었던 한 청년 지식인이, 이기적 욕망을 쫓는 대신 자기를 초월하여 민중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고, 그 하나 됨의 사랑이 하도 깊어 자기 목숨조차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개인적 복락을 누리려고 욕망하는 종교인들보다 자신의 모든 걸 내어 준 래전 형이 더욱 종교적으로 느껴질 수밖에요.

그 해 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의 투쟁을 마치고 다음 날 투쟁을 준비하던 우리는 학생회관 어느 동아리 좁은 방에서 칼 잠을 자고 있었지요. 누군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 보니 '타조 형'이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형, 안 자고 뭐해요?"

"시를 썼어. 한 번 들어 볼래?"

그는 다른 동료들이 깰까 봐,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를 읽던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기도 소리처럼 들려 옵니다. 시는 그의 경건한 기도였고, 투쟁은 그의 신실한 삶이었지요. 그렇게 자기초월의 길을 삶으로 가르쳐 준 '스물 여섯 박래전'은 내가 본받아야 할 형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스승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13절)



## 미안해 형, 아직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서...

김완선/철학88학번

감히 래전이 형이라 부른다. 얼굴 한번 자세히 본 적 없고,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지만 내게 있어 래전이 형은 너무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난 래전이 형을 보았다. 분명 보았다. 대학생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해 생전 처음 접해본 전산 관련 서적을 도서관에서 뒤적거리다가 창 너머 학생회관 옥상에서 숯구치는 새까만 그을음을 보았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는 연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창문으로 몰려들 때쯤 난 학생회관으로 줄달음을 쳤다. 처참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처참해질 줄은 차마 상상조차 못했다. 고개를 수그리자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안경으로 떨어져 어지러운 내 마음마냥 세상이 어룡거렸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거의 매일 열렸던 집회에 참석하고, 투쟁 결의대회 때마다 투석전을 벌이고 화염병을 적들에게 날려 봤지만 가슴 속 깊이 박힌 웅어리짐은 풀어지지 않았다. 래전이 형은 당시 내게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분신을 해야 할 만큼 세상을 꿈쩍이도 사랑했기에 그를 진실로 보듬어 안고 싶었다. 못다 이룬 꿈을 저승에서나마 볼 수 있게 보답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도 백무산 시인의 시를 인용해 추모곡 '너 갔어도 우리 여기 남아'를 만들게 됐다. 음악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작곡의 작자도 모르는 내가 노래를 만든 것이다. "진달래 피던 봄날에 붉은 꽃잎처럼 너 갔어도 우리는 여기 남아야 해. 찢어진 깃폭 흔들며 타는 흙가슴으로 너의 마른 가슴 채워줄 수 있다면 아 불살라도 좋으리 타는 몸 타는 불빛 아 통곡해도 좋으리 마지막 눈물이라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라진 노래로 남았지만 가끔 술김에 흥얼거리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래전이 형이 분신한 지 20년이 흘렀다. 학교를 졸업하고 잡지사에 몸을 담군 나는 기자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노예가 되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래전이 형의 존재는 까마득히 잊은 채 말이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원고마감에 허덕이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내가 속했던 노래패 두메의 어느 선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래전 열사 20주기 문집을 만들고 있으니 원고 좀 써 달라"는 것이다. 사실 내 코가 석자라 귀찮기도 했지만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 글을 쓰겠다는 확답을 차마 하지 못했다. 그러다 요 며칠,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보면서 가슴 속에서 스멀스멀 무언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한동안 듣지 않았던 민중가요도 다시 들으며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래전이 형은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죽은 거잖아. 그런데 20년이 흘렀는데 도대체 바뀐 게 뭐지?' 하며 또 다른 내가 꿈틀거렸다. 과연 나는 20년 동안 그를 보듬었던가. 그에게 보답을 했던가.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기억 속 아드막한 래전이 형을 꺼내면서 반성을 해본다. 6월에는 모란공원에 가서 형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하고 말이다. 요즘 촛불시위에 자주 등장하는 이 노래가 가슴을 더욱 후벼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안해 형, 아직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서.

## 동지들에게

진판규/법학88학번

贈民衆解放烈士朴來侗記念事業會事務局及二十週期記念事業  
準備委員會諸執友

音容一去更難示  
獨有上道樓詩碑  
聞爾不忘冬花意  
補扶無力增羞思

(민중해방열사박래전기념사업회사무국 및  
20주기기념사업준비위원회 여러 동지께 보냄)

(朴來侗 선배님의) 음성과 용모 한번 가시어 볼 수 없건마는,  
홀로 冬花 詩碑만이 上道洞(校庭)에 그대로 있다.  
그대들은 冬花의 뜻 잊지 않겠다고 하는데,  
도와줄 힘이 없어 참으로 부끄럽도다.

##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황성식/국문 89학번

동지여 그대가 보낸 오늘 하루가  
어제 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  
동지여 그대가 보낸 오늘 하루가  
내가 그토록 투쟁하고 싶었던 내일  
-열사가 전사에게-

10년 쯤 되어 간다. 해남에 내려와 보낸 시간들이 ...  
땅끝 문학회 활동, 지역 활동가들과의 교류 그러나 점점 먹고 사는 일  
에 메달리다 보니 참여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요즘은 팔년전에 해남  
사랑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축구모임에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정도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위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축구모임  
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내 모습도 바뀌어 갔다.  
사람들 사이에 정이 줄어들고 남을 감싸 안으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깎  
아내리려는 말투와 행동들이 주가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웃고 즐거  
워 하는 모습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보낸다.  
그 분위기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가고 주위를 맴돈다.

썩썩하다.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 부터 모임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요즘들  
어 부쩍 걱정스러워 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처음 모임을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새로 들어 온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만 하고...

매일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일이 끝나면 매일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 친구에게 전화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항상 어울리고 있는 친구를 볼 수 있다.

그 자리에 가면 나누는 이야기는 거의 똑 같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지루한 시간들..., 갑갑한 시간들..., 무의미한 시간들..., 술에 취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시간들 나의 삶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열사가 전사에게)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느꼈던 말로 형용할 수 없었던 진한 감동과 열사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항상 삶을 되돌아 보려고 노력했던 지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서인지 차일 피일 미루던 글을 쓸려고 했을 때 처음 떠오른 생각도 바로 이노랫 말이었는 지 모르겠다.

이 글 쓰는 내내 이노래를 드는다.

아직도 많은 방황을 하고, 잘 산다는 것이, 제대로 산다는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마음 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한다.

놓치고 싶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

래전이 형의 20주기를 맞이하며 다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겨울 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라 합니다.

새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번 래전이 형의 20주기 추모제엔 꼭 가 불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진정한 향기를 느끼며 돌아 오고 싶다.

## 작은 희망 하나를 만들어 준 사람

정찬희/국문91학번

10년 전 10주기를 맞이하여 자료집에 글을 썼던 기억이 난다. 그때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바쁜 일상의 내용들을 적었던 것 같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20주기를 맞아 또 다시 열사에 대한, 아니 형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다.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2번의 올림픽, 2번의 월드컵, 2번의 대통령선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있었다.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에서 사회복지사로, 두 아이의 아빠로....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면서 조금씩 유월제와 래전형과 멀어져 갔다. 해마다 유월이 되면 민주계단이 생각나고, 모란공원, 화성집이 생각났지만 선뜻 달려가지 못했다. 그리고 갖게 되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갖는 자기 위안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자기변명, 자기만족....

98년 마석에 다녀온 얼마 후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약 1년간을 하는 일 없이 지냈다. 그 후 서울 자유의 집이라는 노숙인 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 곳 인천에 와서,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노동현장에서, 민주화현장에서, 지역빈민 속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자활, 자립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누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대학에 입학했던 그 해 래전형을 처음 만났다. 유월제 국문과 집체극

에서 형을 처음 만났다. 그 후 형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져왔다. 집회

장에서, 학교에서, 화성에서, 유월제에서, 마석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럽지만, 나름 치열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 모습은 그렇지 못해 부끄럽기만 하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는 나는 믿고 있다. 그 믿음을 래전형을 통해서 보았다. 내 주변에는 많은 래전형이 있다. 자신의 신념이 옳은 것이며,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작은 희망 하나를 만들어 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으며, 힘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 그리고 난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희망을 키우고 있다.

10년 후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내 삶속에서,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호준환/무역91학번

나는 아주 작은 여행사를 운영 중이다. 주로 외국인들에게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끔 금강산이나 개성을 다녀올 기회가 생긴다. 북측으로 여행을 하려면, 양측의 출입사무소를 통해 입출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 국경을 넘어 북측 출입사무소에서 심사를 받는 일이 여간 긴장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여겨왔는데,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긴장이 생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측에 들어가게 된다. 금강산은 관광특구로 개발된 곳이라 잘 정비가 되어 있지만, 개성은 북측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대로를 공개한 곳이라 여러모로 기분이 묘하다.

장사치의 눈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과 분단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이질감이 좋은 관광거리이기도 하지만, 속내는 편치 않다.

개성 관광 중에 체험하게 되는 이채로운 경험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거리에 가게가 별로 없다.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길만 그런 것인지 도시 전체가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체제 특성 상 없을 것이라 짐작한다. 1층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상점들과 간판을 보는 게 익숙한 도시인에게는 굉장히 낯선 도시의 모습이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식당 중 통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옆에는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있다. 매우 큰데,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게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때 북측 안내원들과 가끔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대개 단정한 복장과

자세를 요구하는 북측 안내원들과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발생한다. 외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왜 그 앞에서 차려 자세를 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때는 그냥 '여기는 북한이다' 라고 말해준다. 그게 최고의 설명이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인데 경작지인지 아니면 버려진 땅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개성 외곽의 밭, 전봇대가 잘 보이지 않는 동네의 모습, 많이 낡은 공동주택 시설 등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분단이라는 슬픈 현실이 나에게도 오늘 아주 중요한 돈벌이의 수단이다. 어느 TV 광고의 대사처럼,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도, 북측을 육로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언젠가는 북측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일인지 어떤 것인지 아직은 판단이 서질 않는다. 어쨌든 사무실에는 북한 여행을 해보겠다는 외국인들의 문의전화가 바쁘다.

## 선배님께

성혜란/국문 98학번

얼마 전,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하고, 어떤 일이나, 용건이 있는 건 아니나 했더니, 역시 생각지도 못한 '강경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유월제 20주기 문집에 들어갈 글을 한 편 써달라고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출근하던 길이라 깊이 생각도 못 하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내내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며칠을 보냈나 봐요. 그런데 이 글이 아니었으면 이번 유월제도 '유월제 할 때가 됐네.' 하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곧 다가 올 기말 고사 일정을 짜며 고민하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겠지요.

요즘 있었던 이런 저런 일을 떠올리던 중에, 몇 주 전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하던 중에 한 아이가 느닷없이 외쳤습니다.

"5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70프로가 죽는대요!" / "뭐어? 무슨 소리야? 왜 죽어?"

저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어 물었더니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파다한 이야기이더군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5년 뒤에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겁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요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업은 잠시 중단되고, 아이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갑니다. 부모님이 이명박을 찍었다며 부끄러워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을 막지 못한 그 아이에게 면박을 주는 아이도 있고, '못 생겨서 싫어!' 라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아이도 물론 있습니다. 하하. 이쯤 되면 수업은 난장판이 되지요. 촛불 시위가 막 시작되던 무렵이기 때문에 '1004'라는 번호로 '촛불 시위에 참가하자'는 문자가 시시각각 아이들

의 핸드폰으로 날아오기도 한다며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도 있고요.

아이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게다가 5년 뒤면 자신은 스무 살인데 그 때 죽기는 싫다고 한탄하는 아이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굉장히 절실하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총 들고 전쟁에 나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해서 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아이들, 먼 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싸!"라는 감탄사를 내뱉어 저를 화나게 만들었던 아이들, 모두 같은 아이들입니다. (반쯤은 장난인 아이들의 말 한 마디에 감동하고, 상처받고, 놀라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며 자라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이윤이 남지 않는 상식들이 쉽게 내팽개쳐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요. "멸절한 산을 왜 뚫어서 운하를 만들어요?" 라고 묻는 아이만큼의 상식도 가지지 못한 어른들이 힘을 가진 사회에서는 더욱 어렵겠지요.

요즘은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나라 사람들의 상처, 사는 곳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산과 강에 사는 생명, 인간이 만든 육식성 사료를 먹고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소 한 마리에게도 아픈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상식적인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며칠 동안,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연행'으로 막아보겠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을 한 이들이, 당연하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를 연행하라!'며 맞섭니다.

내일도 아이들과 이야기해볼까 봐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모란 공원에 인사드리러 간다면,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날은 햇볕이 너무 따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뵈겠습니다.



##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준 래전이 형

이기동/컴퓨터 99학번

88년 6월 난 그때의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나는 9살에 불과 했기 때문이다. 형이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때 나는 그저 코 흘리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약 10년이 지난 후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형이 산화해갔던 그 공간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고 선후배들을 만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래전이형이 지냈던 곳이다.

내가 형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 1학년 때 선배의 사진을 통해서지만, 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군 제대 후인 것 같다.

군 제대 후 나는 몇 몇 친구들과 '유월제'를 준비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것과 같다. 마치 형이 나에게 스스로 몇몇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해준 것 같았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 그것은 바로 진보정당 활동과 야학이었던 것으로 느껴졌다.

래전이 형을 느끼게 된 후 나는 스스로 진보정당 활동에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역할을 해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장생활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야학'을 하며 내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운 좋게도 직장생활 3년차를 보내고 있는 지금, 나는 일과 정당 활동과 야학활동 모두가 너무 행복하다. 이는 내가 래전이 형을 느꼈을 때 래전이형이 준 그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직장생활을 하며 가끔은 학창시절의 순수함을 잃어가기도 하지만, 20

년 전 래전이 형이 남겼던 뜨거웠던 것이 나에게 종종 자극을 준다.

내 생활에 하나하나 좋은 길을 알려주는 래전이형, 20주년을 앞둔 지금 래전이 형이 또 느껴진다.

##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조배준/철학1학번

그는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가? 더 악착같이 살아서 투쟁하여 말과 진실이 통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무엇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실과 자유와 정의를 호소하고 싶었을까? 기념사업회에 와서 박래전 선배를 처음 알았던 1학년 때 들었던 의문이었다. 그런데 그 '무엇 때문에'는 숭실대에서 보냈던 나의 20대를 규정짓는 첫 번째 물음으로 늘 되돌아왔다. 무엇 때문에 난 여기서 소리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투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가? 물론 그 물음에 대해 회피하거나 주저했을 때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 활동을 하며 2000년대에서 80년대처럼 대학을 다닌다는 편견을 나는 점연쩍게 듣고 다녔다.

난 1980년 서울의 봄에 태어났다. 모처럼 나간 시내에서 최루탄 연기를 피해 엄마 손을 잡고 시내를 뛰어다니던 어슴푸레한 기억과 88올림픽으로 저장되어 있던 내 안의 80년대는, 2000년대에 대학을 다닌 나에게 늘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늘 머리를 풀어헤치고 따라붙는 상처이자 뼈아픈 한계점이었다. 사실 80년대는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거나 명확히 기억되거나 그 안에서 공동체적 삶을 얻지도 못한 채 늘 우리 곁에 386이란 말과 함께 유령처럼 따라붙었었다. 80년대의 유산인 NL/PD 대립구도와 방법론으로 2000년대의 대학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환멸감이 들었지만, 난 지금도 그 구도 안에 갇혀서 사고하고 인식하고 행동한다. 내가 경험한 2000년대의 대학사회는 늘 외로웠다. 도서관에서 토익을 공부하든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때든 늘 부족한 대외와 소극적인 참가자들을 걱정해야했다. 이제 80년대의 유산들이 거의 남지 않은 오늘날의 대학사회의 대학생들에게 박래전이

살았던 80년대는 늘 신기루나 신화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사'와 '기억'이 회귀하려고 한다. 10만 명이 넘게 모인 어제 서울 시위에선 정말 다시는 외치고 싶지 않던 '독제 타도!' 구호도 나왔다. 시민들이 시위 장면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 세계로 전송할 수 있는 2008년 5월의 촛불집회의 정보기술과, 거시담론도 미시적으로 분해하며 유쾌하고 자율적으로 표현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문화는 88년에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들도 여전하다. 시장만능주의와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부자만을 좇는 데도 다들 몸은 바쁘고 마음은 허전하다. 그리고 경찰의 폭력과 알고 기만적인 술수만으로도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바퀴를 거꾸로 돌리며 우리에게 다시 80년대의 악몽들을 떠올리게 한다.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지성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시대를 돌아보는 것이 요즘의 내가 박래전 선배를 진실로 오랫동안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에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비루하게 살면서 비참한 '진보'가 될바엔, 차라리 과거를 부정하고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되는 게 나을 것이다. 난 그를 더 이상 '열사'라는 무거운 말에 묶어두고 싶지 않다. 단지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 참인간이고자 했던" 박래전 선배 그 자체로 그를 기억하고 싶다. 그런데 그를 추모하며 오늘날의 나 자신을 반추하는 이 글을 더 길게 쓸 자신은 없다. 그가 바랐던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겨울 꽃'을 피우자는 그의 제안 앞에서 나는 늘 부끄럽기 때문이다.

화성에 봄에는 고추밭 말뚝을 박고 가을에는 포도를 따러 가서 래전 선배의 방에 래전 선배가 쓰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 기분이 아주 편안했다. 나는 거기서 래전 선배의 국문과 10년 후배인 박기범 선배가 들려주는 나긋나긋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얘기를 들으며 포도 안주에 소주를 마시던 장면을 정말 정겹게 기억한다. 참된 기억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또한 살아가게 한다. '투쟁에 대한 기억' 그리고 '기억



투쟁' 속에서 래전 선배를 추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당당히 마주했으면 한다. 래전 선배는 어머니 아버지께 쓴 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안속만 차립니다.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청년학생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의 세대에 우리들의 세대와 같은 비극이 닥쳐오리란 생각들을 꿈에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 불안한 예언은 90년대를 지나 이제 2008년에 와서 이명박 정권 3개월 만에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20년 전 학생회관 옥상에서 박래전 선배는 자신을 뒤덮은 화염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군부독재 반대! 광주민주항쟁의 진상규명!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외치며 하나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박래전 선배가 꿈꾸던 세상은 아직도 멀기에 우리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박래전은 '무거운 기억'이 아니라 아직 우리 곁에 살아있는 하나의 '촛불'입니다!

-20주기리플렛 중에서-

## 다시 목소리를 높이자!

박창욱/법학 02학번

다시금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슴 한켠이 무거워져 오는 건 열사 앞에 작아지는 저의 모습 때문인듯 합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슴앓이만 할 수 없기에 다시금 열사를 기억하고, 그의 외침에 귀 기울여봅니다.

오늘처럼 햇살이 뜨거웠던 6월, 박래전 열사는 자신의 몸을 뒤덮은 불덩이보다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산화하셨습니다.

하지만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도 민주주의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열사의 외침이 메아리치고 있는 대학 캠퍼스 또한 학문과 진리의 전당이란 역할과 위상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어공부에 목을 매고, 고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높아져만 가는 등록금을 벌기 위하여 알바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이 현재 대학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일자에 대한 요구를 하기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여유보다는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열사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회는 갈등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사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크게 소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외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사의 뜨거운

외침을 우리 마음속에만 가두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 크게  
메아리쳐 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하겠습니다. 열사의 외침이  
그랬듯이 우리의 외침 또한 다양성이 인정되는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법대 인권모임〈중지〉무명

## 모란공원에서

김수민(인천고1)/황정현(국문 86학번) 아들

‘와, 정말 좋은 분이다’

열 살이 되던 어느 해, 6월 6일. 엄마 손 잡고 작은 무덤 앞에 도착한  
어린 꼬마는 ‘박래전 열사’의 영정을 바라보며 참 좋은 분이시다 라  
고 나지막히 혼잣말을 했다. 엄마와, 이모들, 삼촌들을 대신해 엉엉 울  
어준 고마운 분, ‘겨울꽃’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졌고 시를 참 잘  
쓰셨던 분이 왜 이곳에 계셔야만 했을까?

꼬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고사리 손으로 국  
화를 올려놓고, 향을 피우며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몇 번을 중얼거리면서 절을 하고,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현충일 아침이 되면 성아와 수빈이와 함께 모  
란공원에 가는 길은 항상 즐거웠다. 차 안에서 이리저리 구르면서 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몰랐다. 모란공원에 도착해서도 이곳저곳 뛰어다니  
며, 꽃 구경, 나무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무척이나 어렸었던 그 때는, 그저 현충일이, 모란공원에 가는 날이, 즐  
겁게 놀 수 있는 날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였던가. 박래전 열사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숭실대  
옥상에서 분신하셨다는, 그 가슴 시린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부터,  
예전엔 미처 몰랐었던 마음속 울렁거림이 새록새록 피어올랐으며, 그  
저 놀이터 같았던 이곳의 녹음이 누군가의 아픔과 외침을 담은 공간이  
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어렸을 때보다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매년 현충일, 모란공원에 찾아가 수 있게 되었다. 사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그것이 그저 평범한 바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모란공원이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노동열사, 학생열사들의 숭고한 뜻이 서려있는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박래전 열사께 보내는 방명록을 쓰고 문득 고개를 들자 어느 때보다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춰주었다. 마치, 어디선가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훨훨 날아가는 흰 나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신기하게도 모란공원의 나비들은 꽃이 아니라, 그 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날아와서 속삭이듯이 머물렀다 가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난 그것이 모란공원에 잠들어 있는 많은 열사들의 전령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그네들은 그 순백색의 날개로 치열하고, 복잡하고, 인정 없던 그때 그 시간들을 잊지 말라는 숭고한 뜻을 아스라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흰 나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모란공원에 남아서 말해줄 것이다. 항상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구어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잊지 말라고. 박래전 열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들의 곁을 떠난 지, 어느덧 스무 해가 지나갔다.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날을 연중행사로만 생각했었던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쓰라림을 느끼는 건 아마도 모란공원을 통해, 나비들의 날개짓을 통해. 민주주의를 외치며 안타깝게 쓰러져 가셨던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매년 초여름이 되면, 마음 속 깊이 생각나는 곳이 있다.  
푸르른 잔디 위로 순백의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곳.  
까맣게 타들어가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민주의 쉼터, 자유의 쉼터,

평화의 동산.

우리들의 눈물을 시원한 바람으로 흩쳐 주며,

지친 우리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는 아름다운 열사들의 넋이 살아오는 곳,

모.란.공.원.

‘열사여, 편히 잠드소서!’

## 방 명 록

래전이 형 묘소에 있는 방명록 글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방명록

형 생각이 무지 나서 무더위를 무릅쓰고 달려 왔죠  
누군지 척보면 아시겠죠. 저 영이에요.  
속이 하도 허해서 형 얼굴 보면 나아질까하고....  
사진이며 진열장이며 모두 깨끗이 바뀌어서  
기분도 좋고요. 뼈꾸기도 우네요.  
무더위 잘 견디시고. ...  
형 만나니 속이 차는 것 같아요.  
다시 힘내서 계속 전진해야죠.  
조만간 또 뵈러올게요.

2000년 7월 2일 형의 사랑스런 후배 길길 " PM5:26

형!  
너무 오랜만에 형의 앞으로 왔습니다.  
예전처럼 형 앞에서 막걸리나 한 잔 하고 가고  
싶습니다만 챙겨오지 못했군요.  
가끔 힘 빠지고 정신 못 차릴 때 힘이 되어 주세요.  
자주 오진 못해도 ...

이윤주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92학번 눈이 아주 많이 온 날  
창과 훈이  
형을 보러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1.13

올 때마다 부끄럽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서  
방명록을 들춰보기만 하고 처음으로 글을 남겨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과 방 위에 있는 형의 얼굴을 보곤합니다.  
어느새 유월제가 13주기가 되었네요.  
유월제를 준비하여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매년 있는 행사에 끼워 맞추기가 되는 것이 아닌지  
너무 부끄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어제는 화성에 갔다 왔어요.  
우리 졸업하면 이제 학교에 남아있는 어느 후배가 여기를 찾아  
올까 라는 한 선배의 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형을 보며 배우고 대학을 알았는데 정작 저는 후배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형 지켜봐 주세요.  
저 정말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 하고 싶다고 매일같이 투정  
부리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힘 좀 주세요  
자랑스럽게는 아니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네요.

2001.5.27

래전이 삼촌께  
안녕하세요. 사진으로만 보고 진짜로 못 뵈서 섭섭해요.  
삼촌이 살아계시면 좋을 텐데.... 한 번 보고 싶어요.  
래전이 삼촌 땅속에서도 잘 지내시죠.  
그만 줄일게요.

박성아 올림  
(기범이 삼촌 심명숙 이모와 우리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래전이 형  
올라오는 길에 까치가 울어줘서 고마웠어요  
혼자 찾는 길.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걷는 길.  
그래도 까치가 울어줘서 고마웠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도요.  
그런데 용기 내어, 힘내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생겨먹은 모양새가 그런가 봐요.  
형 찾아오느라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았어요.  
다음엔 더 힘내서 올게요.  
형. 고마워요.

2002.6.6 후배

2002.9.17. 화요일 하늘, 높은, 가을

지난 주말 포도 따고 오는데 엄마가 한 상자 따로 싸 주었어요.  
조그만 종이 상자 바구니.  
“이거 산에 갖다 줘. 응?”  
생전 형 얘기 외면하기만 하던 아버지도 웃는 낯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응. 그것도 여 가서 주고 와.”  
기뻐어요. 기쁘지요?

그리고 오늘 형 앞에 왔어요. 형네 밭에서 딴 포도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먹어.  
엄마는 맨날 형 걱정이다.  
“요새 산에 가면 뭐라 그래? 추워 죽겠단지?”

오늘은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지웅이(9살)이랑 준식이(22살).  
둘 다 정신지체 아이들이예요.  
내가 요 너머 마을에 살면서 2년째 함께 지내는 아이들.

우리 상 위에다가 포도도 수북이 놓고요, 김밥이랑 만두도 놓고,  
막걸리랑 복어포도 올리고 인사했어요. 지웅이, 준식이기도 같이  
절 했어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저 향이 타는 것만  
신기해하고 그랬지만 같이 절 했어요.

우리 여기서 한참 놀고, 먹고, 술도 마시고(헤헤)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 서신에 전화할 게. 잘 있다고.  
엄마한테 뭐 할 말 있으면 얼렁 말해. 가서 얘기해주게.....



양수리를 따라 형 보러 오는데 참 좋았어요  
세상이 참 예뻐보였어요.  
형도 함께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래군이 형은 형 생각으로 마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알죠.  
어머님은 오는 길에 형한테 줄 꽃을 찾았구요.  
성아 수빈이는 철없이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한 두 방울 떨어지네요.  
늘 햇빛이 형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했는데...  
형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가끔 형 생각하며 착하게 건강하게 잘 살게요.  
어린 애처럼 철없이 굴지 않고 강하게 살게요.  
형 잘 있어요.

2003. 6. 6 종수기.

다녀갑니다.

참 오랜만이라 오는 길이 낯설기까지 했어요. 삼년만이에요.  
이번엔 꼭 와야겠다고, 형을 만나고 그때 기억들을 만나고 사  
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제 20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서른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  
설레이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는  
않으네요.

이젠 좀 용기 있어졌지요, 이젠 스스로를 좀 더 보듬게 되었지  
요.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겨우 얼굴만 몇 번 보았던 사  
람들이 몇 있고 래군이형이나 종숙언니, 어머니, 성하, 수빈이  
를 빼면 거의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옛사람들 여럿 만나 반  
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때 그 마음들,  
그때 그 기억들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뭐 괜찮아요.

이제 그 마음들로 하나씩 찾아내면 될 테니까요.

늘 여기 이렇게 있어 주셔서,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어서,  
서두르지 않기로 해봅니다. 많이 고마워요. 형

2005.6.6 숙현

# 제4부 겨울꽃과 더불어

- 초대동화/겨울꽃 삼촌 박기범
- 초대시/뽕밭 이용현



## 겨울꽃 삼촌

박기범/동화작가. 국문91

나는 이제서야 알았다. 나한테도 친삼촌이 있었다는 거다. 그런데 나는 그 삼촌의 얼굴도 모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삼촌은 1988년까지만 살았다. 그 해는 내가 태어나던 때인데, 나는 겨울에 났으니까 못 본 거다. 그러니까 삼촌이랑 나는 세상에서 같이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다. 아마 아주 먼 나중에 나도 하늘 나라로 가게 된다면 만날지 모르겠다.

오늘은 현충일이다. 어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를 했다. 현충일에 대해서 훈화 방송도 하고, 글짓기나 포스터 같은 게 뽑힌 애들은 상장도 받았다. 선생님은 국립 묘지에 가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자고 했다. 현충일 날은 그 분들을 위해서 묵념도 하고, 그 마음으로 태극기를 반쯤 내려 달아야 한댔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식구는 모두 마석에 갔다. 모란 공원이라는 데다. 공원은 공원이지만 보통 공원들이랑은 달랐다. 산소들만 뽐뽐하게 들어차 있는 언덕배기다. 거기에는 애기 적부터 계속 갔으니까 아아 그 때 왔던 데구나, 하는 기억들이 여기저기에 있다. 그런데 언덕 중간쯤까지 올라가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났다. 어저께 선생님은 국립 묘지 얘기만 했지 이 곳 얘기는 안 했는데 아빠는 왜 맨날 여기만 데려오나 하는 거였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그게 궁금해졌다.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보는 국립 묘지에는 태극기도 많고, 꽃다발도 가득했다. 차도 많았고, 사람들도 웅성였는데 거기에는 안 그랬다. 더운 해만 쨍쨍하게 비쳤다.

산소들 사이로 꾸불꾸불 나 있는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갔다. 우리가 가려는 산소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았다. 다른 산소에는 계속 더운 해만 내리쬘었다.

점점 가까워지니까 찬희 삼촌이 성하야, 하고 불렀다. 옆에 있는 유미 이모도 수빈아, 하고 내 동생을 불렀다. 산소 가에는 아는 삼촌, 이모 들이 참 많았다. 찬희 삼촌, 명규 삼촌, 점기 삼촌, 유미 이모, 숙현이 이모, 그리고 또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거기에서 보는 삼촌이나 이모들은 나를 참 예뻐해 줬다. 처음 보는 사람도 거기에서 한번 보면 금세 친해졌다. 그 삼촌이랑 이모 들은 시골에 있는 우리 할머니네 집에서 본 적도 많다. 일요일 날 아빠가 일하러 시골 갈 적에 따라가면 거기에 와 있었다. 봄에는 밭에다 거름을 줬고, 가을에는 포도를 따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이모, 삼촌들이 꼭 말 잘 듣는 애같이 굴었다.

조금 더 있으니까 할머니도 왔다. 또 다른 삼촌들이 할머니랑 같이 왔다. 할머니가 만든 떡이랑 김치를 통에 담아 짊어지고 왔다. 할머니는 한복을 입었다. 엄마한테 할아버지는 왜 맨날 안 오시나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걸음을 못 걸으니까 못 오시지, 했다. 삼촌들이 할머니한테 가서 옆구리에 팔짱도 끼고, 손가방도 대신 들고 그랬다. 할머니 얼굴의 주름살은 계속 웃었지만, 눈은 안 웃는 것 같았다. 억지로 웃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안 웃으려는 건지 모를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온 산소 뒤로 빙 둘러섰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산소들까지 넘어가서 뺨곡하게 섰다. 수빈이가 갑자기 쥔얼거려서 엄마는 저만치에 있는 나무 그늘로 가자고 했다. 그 쪽 그늘에는 삼촌, 이모 들의 애기들도 있었다. 나는 이제 애기가 아니니까 수빈이랑 엄마만 가라고 했다. 나는 아빠 손을 꼭 잡고 그 속에 있었다. 오늘은 뭐하는지를 잘 보고 싶었다.

승상이 삼촌은 사회자인가 보다. 얼굴도 까만데 양복까지 검게 입었다. 마이크로 뭐라 뭐라 했다. 숙현이 이모도 나와서 뭘 읽었다. 그러더니 아빠도 앞에 가서 얘기를 했다. 아빠가 내 손을 놓고 가기에, 나는 할머니한테로 갔다. 그런데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할머



한테 왜 우냐고 물어 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떠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소곤대는 말소리 하나 없었다. 나는 또 물어 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꼭 참았다.

국립 묘지도 아닌데 삼촌들은 묵념을 했다. 노래도 불렀다. 돌아가면서 절도 하고, 꽃도 놓았다. 줄이 길어서 다 절할 때까지는 무척 오래 걸렸다. 사람들이 한바퀴 다 돌고 나니까 산소는 아예 꽃무덤이 됐다.

사람들이 다 묵념을 할 때, 나는 살짝 눈을 떴다. 산소 앞에 있는 비석을 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다. 박 · 래 · 전. 박래전? 우리 아빠 이름은 박래균이다. 우리 아빠랑 이름이 한 글자만 달랐다. 그 앞에는 민중 해방 열사라고 써어 있었다. 아까 전에도 사람들이 말할 때 열사, 열사했다. 아니면 래전이 형이라고 하거나, 박래전 선배님이라고 했다. 민주화 운동, 하는 말도 생각나고 우리가 형을 다시 살려 내자, 하는 말도 생각났다.

절하는 것도 다 끝내고 밥을 먹을 때 나는 기철이 삼촌한테 물어봤다.

“삼촌, 박래전이 누구야?”

“삼촌이지.”

“어떤 삼촌?”

“성하는 삼촌이 많지? 이모도 많고. 저 산소에 있는 삼촌도 성하 삼촌이야. 성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삼촌.”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도 저 삼촌은 하늘 나라에서 성하를 보고 있지.”

“근데, 할머니는 왜 울어?”

“하늘 나라에 있는 게 슬퍼서.”

“그럼 왜 이름은 박래전이야? 우리 아빠는 박래균인데.”

기철이 삼촌은 다 얘기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 알게 됐다. 집에 와서 엄마가 말해 줬다.

래전이 삼촌은 진짜 우리 삼촌이다. 먼 친척 삼촌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삼촌들처럼 가짜 삼촌도 아니다. 진짜 삼촌인 거다. 수빈이가 내 동생인

나는 엄마한테 계속 물어 봤다. 그럼 삼촌은 왜 죽었냐고, 열사가 뭐냐고, 민주화 운동이 뭐냐고 했다. 엄마는 말해 줄까 말까 하는 것 같았다. 밤에 아빠가 오면 그 때 얘기하자면서 자꾸만 부엌으로 갔다. 그래도 나는 계속 물어봤다. 엄마는 세수를 하고 나랑 거실에 앉았다. 엄마한테서는 비누 냄새가 났다.

삼촌은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었다. 삼촌은 자기 몸에다가 불을 질러서 타 죽은 거였다. 꿈적했다. 그 때는 내가 태어나던 해인 1988년 6월이랬다. 6월 6일이랬다. 현충일이랑 날짜가 똑같다.

엄마는 갑자기 옛날 얘기 같은 말을 들려 주기 시작했다.

“성하야, 옛날에 임금님이 살던 때가 있었지? 그 때는 어질고 백성들을 위하는 훌륭한 임금님도 있었지만, 안 그런 임금님도 많았지?”

성하가 태어날 때도 그랬어. 임금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센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군대를 이끄는 대장, 사람들이 일할 일터를 가진 회사 사장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대통령도 빠르게 뿔힌 어른이 아니라, 군대를 끌고 와서는 억지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옳은 법보다는 힘센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법만 만들었던 거야.

사람들은 억울했지. 그리고 분했지. 열심히 일한 만큼 행복해지고 싶었지. 강제로 대통령이 되거나, 힘으로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 물러나기도 바랐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들끼리 의논도 하고, 서로 돕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랐거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바람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어.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 나가기에도 너무나 고생스러웠으니까. 게다가 그런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조차 없었지. 옳은 말을 하면 잡아 가는 무서운 법도 있었고, 군대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대장들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은 싸움을 했어. 싸움 중에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나쁜 싸움만 있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바른 싸움도 있는 거지. 성하 삼촌이 했던 싸움도 그런 거였어. 그런데 여태껏 힘과 욕심으로



모든 걸 차지해 온 사람들과 싸우는 일은 너무 힘들었다. 옳은 말을 하면 잡혀 가고, 매 맞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였구나…… 삼촌은 엄마가 말해 준 그 싸움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쫓겨 다니고, 끌려 다니고, 잡혀 다녔다고 했다. 아빠도 그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랬다. 감옥에 가거나 다친 사람도 많다고 했다. 죽게 된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아까 전에 공원에서 본 다른 산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였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늘 마음을 졸였었다. 아빠랑 삼촌이 쫓기고 잡혀 다니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의로운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아들이 자꾸 끌려가고 고생하니까 그랬던 거다. 그러다가 삼촌은 끝내 죽기까지 한 거다. 자기 몸에 불을 놓아서 타 죽은 거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차라리 지금까지 계속 살아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지, 왜 죽나? 할아버지는 삼촌 때문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다. 어쩐지 할머니는 늘 슬퍼보였다. 오늘 같은 날은 더 슬펐고, 기쁜 날은 더 많이 슬펐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박래전이라는 우리 친삼촌을. 그리고 나를 예뻐해 주던 많은 가짜 삼촌들과 이모들을. 그 사람들은 다 우리 삼촌이랑 같은 뜻을 가졌던 친구들이다. 먼저 하늘 나라로 간 삼촌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다. 삼촌이 죽으면서 바라던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삼촌이 죽었던 날에, 1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모이는 거다. 삼촌을 잊지 않으려고 모이는 거다. 삼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모이는 거다. 그리고 삼촌을 대신해서 우리 시골에도 가는 거다. 어쩐지 이모나 삼촌 들은 우리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였다.

우리 아빠도 그렇다. 아빠가 다니는 사랑방도 그런 데다. (아빠가 다니는 데는 정식으로 '인권 운동 사랑방' 이라고 했다.) 그 전에는 이상했다. 아빠는 왜 무슨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가게 다니는 것도 아니야? 아빠가 다니는 데는 이름이 왜 사랑방이야? 했는데 이젠 조금 알 것 같다. 아빠가 다니는 일도 그런 것일 거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

도록 노력하는 것, 그건 우리 삼촌이 하고 싶었던 일일랑도 비슷할 거고, 거기에 묻혀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랑도 비슷할 거다.

아까는 점심밥을 다 먹고서는 다른 데도 돌아다녔다. 줄을 서서 그 옆에 있는 산소들을 돌아다닌 거다. 그렇게나 많은 산소들도 다 삼촌 같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데라는 건, 나중에야 엄마한테 들어서 알게 됐다. 나는 아빠 손을 잡고 따라다녔다. 산소마다 그 앞에 뭐라고 써어 있는지 그 이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다. 하지만 거의 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다 돌아다닐 동안 그 중에서 아는 이름은 둘 있었다. 하나는 우리 삼촌 바로 옆에 있었던 거다. 거기에는 '전태일' 이라고 써어 있었다. 전태일은 기철이 삼촌이 사 줬던 동화책 속에 나온다. 전태일 아저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쓰신 분이다. 삼촌처럼 몸에 불을 붙여서 죽은 아저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가 말해 줬던 통일 할아버지다. 삼촌 산소에서 건너, 건너, 건너, 건너 쪽 가니까 문익환 할아버지가 나왔다.

다른 산소들도 다 돌아보고 나서 내려올 때였다. 삼촌 이름이 있는 비석 옆에는 넓적한 비석 같은 게 또 있었다. 맨 위에는 한문 글씨가 있었다. 옆에 있던 기철이 삼촌이 '동화(冬花)' 라고 읽어 줬다. 겨울꽃이라는 뜻이랬다. 래전이 삼촌한테는 별명이나 마찬가지로 됐다. 거기에 써어 있는 건 시였다. 래전이 삼촌이 쓴 시였다.

"저 삼촌은 왜 별명이 겨울꽃이야?"

"겨울꽃이랑 닮았으니까."

"어떻게 닮았는데?"

"바람이 쐬는 추운 겨울에도 피워 내는 꽃처럼."

"사람은 꽃이 아니잖아."

"래전이 삼촌은 꽃이 아니지만, 래전이 삼촌 마음은 꽃이었지."

"그러면 뭐가 닮은 건데?"

"겨울처럼 무섭고 힘든 때에도 늘 아름다운 마음을 시들지 않게 피워 냈으니까."

아직 그 때는 래전이 삼촌이 진짜 우리 삼촌인지 모를 때였다. 기철이 삼



촌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다 아리송했다.

점점 해가 내려앉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내려갔다. 언덕이나 산길은 이상하게도 내려가는 게 더 어렵다. 수빈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엄마가 업었다. 그 때 기철이 삼촌이 다시 옆으로 왔다.

“성하야, 여기에 온 이모, 삼촌 들끼리도 닮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물—라— 다 다르게 생겼네, 뭐.”

“겉으로 보면 다 다르지, 마음 속을 봐야 해.”

“마음 속에 뭐가 있는데?”

“꽃이 있지.”

“무슨 꽃?”

“겨울꽃.”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딴진? 여기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는데. 겨울꽃 삼촌 앞에서서는 혹시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꽃이 시들었나, 안 시들었나 비춰 보려고 말이야.”

기철이 삼촌은 그런 말도 했다. 내가 내 마음 속에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니까 그랬다. 잘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 속에는 작은 씨앗이 있다고 했다. 꽃씨였다. 그 때 기철이 삼촌이 하는 말은 다 이상했지만, 그 말만은 안 이상했다. 정마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꽃씨가 잠자고 있을 것 같았다.

잠자기 전에 뉴스를 봤다. 제일 먼저 현충일 얘기가 나왔다. 국립 묘지도 나왔고, 묵념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어떤 산소 앞에서는 울먹이는 할머니가 나왔다. 나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다. 그 할머니도 슬프고 우리 할머니도 슬프다.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슬프지만, 나라를 좋게 만듦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슬프다. 슬프고 훌륭하다. 하지만 우리 겨울꽃 삼촌처럼 거기에 묻힌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안 나온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분들은 하늘 나라에서까지 슬

퍼할 것만 같다.

이제 잠을 자려는데도 잠이 잘 안 온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 산소들 생각이 나고, 꽃무덤이 돼 버린 삼촌 산소가 생각난다. 울던 할머니 생각도 나고, 앞에 나가서 말하던 아빠 생각도 난다. 엄마가 해준 말이랑 기철이 삼촌이 해준 말들이 섞여 가슴이 울렁울렁한다. 몸이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게 자꾸만 상상된다. 무섭고 끔찍하다. 슬픈 건지 어쩐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기분이 이상하다.

나는 우리 삼촌이 죽지 말지, 하는 생각을 했다. 죽지 않았으면 사람들도 슬프게 하지 않고, 계속 살아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아마 삼촌은 그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나 보다.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바라고 싶은 게 절박했나 보다. 그래서 삼촌은 겨울꽃이 되려고 했나? 죽고 나서도 사람들 마음 속에서 계속 피어 있다. 삼촌은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마음 속에서 계속 얘기도 나눈다. 슬픈 마음도 주고, 용기도 준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도 삼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기철이 삼촌이 말했던 그 씨앗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삼촌은 계속 피어 있다. 겨울꽃이 되어 피어 있다. <끝>

박래전(朴來全)은 오랜 대학 생활 동안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1988년 6월 숭실대학교 학생 회관 옥상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며, 독제 정권을 몰아내자는 뜻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동화(冬花)는 겨울꽃이라는 뜻으로 그가 평소에 즐겨 쓰던 필명입니다. 학생 시인이기도 했던 그는 같은 제목의 시를 쓰기도 했고, 죽은 다음에는 생전에 써 놓았던 시를 모은 《반도의 노래》라는 유고시집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 안에서 말을 해 나가는 성하는 박래전의 실제 조카 성아를 생각하며 쓴 인물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썼지만, 이야기를 위해서 성아가 4학년인 것처럼 썼습니다. 아직 성아는 래전 삼촌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성아가 열한 살쯤 되면 그 때 들려주고 싶습니다. 1998년 11월 7일.

박기범 단편 동화집 『문제아』 <참비>에서 옮겨 실었습니다.



## 뺨 발

이용현

방글라데시에서 왔다고 했다  
 물음표 모양의 쇠갈고리를 들고  
 폐지뭉치를 퍽퍽 찢러대는 그의 오른손은  
 의문투성이다

다섯 손가락 중 세 개는 보이지 않았다  
 남은 두 개는 엄지와 검지뿐이었다  
 검은 눈썹 아래 질푸른 눈망울을 꿈뻑이며  
 온종일 1톤 트럭에 폐지를 싣는 그의 손놀림은  
 뺨발을 기어가는 게발 같았다

끼니 때마다 그의 왼손에는 바다가 들려 있었다  
 그가 마른 기침을 할 때마다 파도는 넘실거렸다  
 가끔은 은빛 손가락을 입에 문 게발이  
 펄펄 끓는 순두부 사발에 뽀지락거리다가  
 땡그랑 땡그랑, 나동그라지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붉은 노을이 제본소 바닥에 흩어졌다

모르겠어요 이제는 뭘지 않아요  
 그의 혀끝은 이미 바다 건너 두고 온 맛과 키스와

달콤한 모국어를 잃어버렸다  
 세 개의 손가락이 잘려나간 이후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편지를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고향은 방글라데시,  
 인도양의 푸른 파도가 제본기의 책갈피처럼  
 펄럭이며 밀려올 때면  
 그는 공장 한 귀퉁이 폐지뭉치 위에서  
 낡은 지도책을 펴 놓고  
 엄지와 검지로 바다의 거리를 재기도 하였다

이용현 光州 출생. 2007년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 수상

## 冬花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르는  
가을꽃일 수 없습니다.

제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冬花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